

<박사학위논문 소개>

밀레니얼 세대 청년층의 수도권 재집중화 요인에 관한 연구*

Reconcentration of Millennials into Seoul Capital Region

저 자: 김 현 우 (Kim, Hyunwoo)**

지도교수: 강 명 구 (Kang, Myounggu)***

국민의 정부부터 시작된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수도권-비수도권간 불균형 성장 문제 해소를 위한 전환점이 되었다. 이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경제적, 사회적 격차가 점차 완화되자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대도시에서 인근 중소도시로의 인구이동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수도권으로의 재집중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20대~30대 청년층의 수도권 이동이 많아지고 있다. 기존 인구이동 연구에서는 소득, 일자리 등 경제적 요인과 장소 기반의 공공재와 어메니티 등 지역 어메니티 요인을 통해 이동의 원인을 찾고 있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가 밀레니얼 세대의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에 영향을 주었고, 이로 인한 '삶에 대한 자기결정권'에 의한 결과로 이동이 발생하였다고 보고 있다. 즉, 밀레니얼 세대는 원하는 일자리에 대한 선택과 여가시간 선택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동한다는 것이다.

본 고에서는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지역경제 성장과 지역 간 인구 이동의 동태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GRDP 증가율과 취업자증가율은 순이동률과 정(+)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비수도권의 경제 하강이 배출요인으로 작용하여 상대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낮은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은 표본선택 이변량 프로빗 모형을 통해 밀레니얼세대 인구이동에서 일자리 특성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즉, 지역 간 이동을 선택한 취업자의 직업 선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파악하였다. 2018년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창의인력(전문직·관리직·예체능)인 경우와 근로시간, 적성, 일자리 안정성을 중요하게 판

단하는 사람들이 인구이동을 선택하는 확률이 높았다. 즉, 일과 여가에 대한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원하는 안정적이고 일자리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수도권으로 이동한 사람은 일자리 안정성에 대한 중요도가 낮았는데 이는 치열한 경쟁을 감안하더라도 원하는 일자리와 도시를 선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토다로(Todaro)의 기대소득 가설과 티부(Tiebout)의 지역 어메니티 소비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회귀분석모형을 통해 2008년과 2018년의 연령층별 지역 간 이동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밀레니얼 세대 25세~29세 청년층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용직과 일용직 비중이 높고, 창의 일자리가 집적된 지역으로 이동하며, 청년층이 선호하는 커피숍과 같은 어메니티가 잘 조성된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밀레니얼 세대 20대 청년층은 자신들이 원하는 직업과 도시 어메니티를 선택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밀레니얼 세대 청년층의 경우, 직업 종류, 근로 형태 등 일자리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일과 여가생활의 균형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개인의 효용 극대화를 이룬다고 보았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인구불균형과 청년고용 정책에서도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주제어 : 인구이동, 밀레니얼 세대, 자기결정권, 불안정 속 안정

Keyword : Migration, Millennials,
Self-Determination, Stability under
Unstable Economy

* 본 논문은 필자의 서울시립대 박사학위 논문인 김현우(2020), '밀레니얼 세대 청년층의 수도권 재집중화 요인에 관한 연구'를 요약한 것임.

**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hwkim@kiet.re.kr

*** 본 학회 정회원,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 mk@uos.ac.kr